



## 제3회 황성한우축제



한규호 군수의 인사

황성군(군수 한규호)이 주최하고 황성한우축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2006 제3회 황성한우축제가 “대한민국 단 하나의 명품 황성한우”라는 슬로건으로 10월18일 황성한우 상징 조형물제막식을 시작으로 22일까지 5일동안 황성읍 섬강둔치 일원에서 축제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우를 테마로 하였지만 황성군의

특산품인 황성더덕, 안흥진빕 등 지역 특산물도 함께 전시되어 홍보할 수 있도록 한 특별한 축제의 장이었다.

특히 1km가량 되는 긴 행사장을 일반인들이 관람하기 좋게 전시장, 공연장, 먹거리장, 한우체험장으로 구분하여 공간배치토록 배려한 점이나 수많은 관광객이 다녀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행사장이 깨끗한 것은 다른 어떤 곳의 행사장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선진화된 문화행사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이는 인구 4만5천의 군민이 성공적인 황성한우 축제를 기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황성지역 관계기관들의 참여, 더 나아가 행사도우미의 일선에 황성한우연구회가 주축이 된 농가들의 자발적인 도움이 더해진 결과로 보였다.

한편 이번 축제를 찾는 전국의 많은 관람객들



한우체험장 전경



소달구지 타보기 체험

을 위해 횡성군은 10월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한우축제 대비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10월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행사장 주변을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행사준비에 끝까지 만전을 기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횡성한우축제는 3GO(보고! 즐기고! 먹고!)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체험, 체험이벤트, 공연 및 전시행사 등 7개 분야 80종의 행사로 준비하였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들이 이용하는 곳은 역시 횡성한우의 특별한 맛을 체험하기 위한 셀프식당과 횡성축협 판매장으로 첫날부

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줄서서 기다리는 등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으며 축협의 한 관계자는 판매장 3곳을 비롯해 셀프식당을 지난 축제보다 크게 확장하고 횡성한우도 300여두를 준비했지만 직원들이 몰려드는 손님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라 하였다.

또한 횡성한우축제가 한우를 테마로 하고 있는 만큼 한우와 관련한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벤트를 많이 준비하여 한우를 처음 접하는 관람객들에게 우리 한우를 새롭게 인식하고 오래 기억에 남을 추억여행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소 발갈이 체험, 외양간 체험, 송아지 놀이



먹거리 행사장



횡성한우판매장(횡성축협)



횡성한우 셀프식당

마당, 소달구지 타보기, 한우영상기획물 및 우시장 경매과정 영상물 상영, 코뚜레/명 제작체험, 횡성한우사진 및 조각품전, 명품횡성한우기술관 운영, 인간소싸움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과 더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머물도록 한 곳이 있었는데 그 공간은 다름 아닌 횡성한우 특성우가 전시된 곳이었다.

이곳에는 5대의 번식우(11살인 1세대부터 2살인 5세대까지)가 한자리에 전시된 것을 비롯 18두의 한우를 생산한 횡성지역 최고령다산암소, 1톤이 넘는 횡성 최고의 슈퍼한우, 칩소 등이 전시되어 있었다.

이번 축제의 또 하나의 주목할 이벤트인 한우 품평회가 큰암소부문, 육성우부문, 암송아지부문, 고급육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있었으며 21일에는 품평회 시상식 및 수송아지를 경품으로 한 큰암소 맞추기 이벤트 추첨식이 함께 진행되었다.

이날 품평회 시상식에서 한규호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의 자랑스런 횡성한우축제가 있게 한 것은 어려운 축산여건에서도 횡성한우를 귀하게 생각하고 정성으로 한우산업을 지켜온 한우농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면서 이제 횡성한우가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브랜드로서 뿐만 아니라 횡성군이 전국 대표명품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



송아지 놀이방



소 밭갈이 체험



한우품평회계류장



박연수 심사위원장의 출품축 설명

가자" 고 하였다.

이번 품평회 큰암소부문의 최우수상은 김복수(안흥면)씨가, 우수상은 심우학(갑천면)씨와 오명근(서원면)씨가 각각 수상하였으며, 육성우부문의 최우수상은 엄기철(강립면)씨가, 우수상은 한은희(둔내면)씨와 경규명(안흥면)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암송아지부문의 최우수상은 진영두(청일면)씨가, 우수상에는 김기섭(우천면)씨와 김이기(갑천면)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고급육부문의 최우수상은 1++A등급에 도체중 451kg, 배최장근단면적 98cm<sup>2</sup>, 등지방두께 0.9cm, 육량지수 67.70, 근내지방도 9++의 평가를 받은 조

성만(안흥면)씨가, 우수상은 1++B등급을 받은 안기춘(둔내면)씨와 역시 1++B등급을 받은 이세화(강립면)씨가 각각 수상하였다.

시상식에 이어 품평회 큰암소 알아맞추기 이벤트 경품행사 추첨이 한우농가 노래자랑과 어우러져 많은 관람객을 즐겁게 하는 가운데 진행된 추첨에서 수송아지를 경품으로 받게 된 최고 행운자는 충북 충주의 한 관람객에게 돌아갔으며 그 외 전국 각지에서 축제를 관람키 위해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냉장고, 세탁기, TV, 자전거, 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고 돌아갔다.



한우품평회 입상축



# Spot Focus

## 횡성한우축제 행사이모저모



